



함께하는 사람들

정을진

노동자협동조합 마포건설 소장

“건설 소비자 공동체” 실현한다

노동자 생산공동체 마포건설의 정을진 소장(44). 20년이 넘도록 건설노동자로, 빈민운동가로 살아왔으니 ‘개발’과는 뿔 수 없는 인연인 셈이다. 그는 요즘 우리 삶의 새로운 조건을 ‘개발’하고 있다.

92년에 설립된 마포건설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주인인 기업. 현재 일하는 7명의 조합원은 모두 출자자이자 노동자다. 이익금의 50%는 배당되고 30%는 자본축적을 위해 적립되며 20%는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환원된다. 안정적 기반이 구축되면 점차 적립금 비율을 줄이고 배당을 늘려갈 계획.

지난 10월20일에는 마포건설이 지은 하왕 2-1 지구 세입자 거주단지 1백8세대가 완공, 주민들이 입주했다. 처음엔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나 간다. 93년 12월엔 경북 상주의 화령성당 수녀원을 개축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아직 잡지 못한 상황이라 정소장은 주위의 지나친 기대가 한편 부담스럽다고도 한다.

“10년을 보고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3년을 온 것 뿐입니다.”

그렇다. 이제 초기단계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 정산을 즈음해 대표와 임원진도 선출할 예정이며 곧 법인등록도 하게 된다. 3년의 분투가 있었기에 이 정도 조직 개편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을진 소장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전환점은 86년에 찾아왔다. 그가 살던 도화동에 철거가 시작되면서 그는 세입자 대책위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철거싸움이 1년, 2년 넘어가면서 주민들의 생계에 큰 곤란이 닥치게 됐다. 건설현장 일은 대부분 인맥을 타고 ‘오야지’에게 받게 되는데 철거민들은 자주 일을 못 나가니 점차 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자구책으로 주민들끼리 일을 연결해주다 90년 4월 「건설노동자 쉼터」를 열게 된다. 이 「쉼터」가 바로 마포건설의 모태.

정소장은 이 때부터 새로 목수일을 배웠다. 노동자 생산공동체를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건설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여년을 건설노동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가 죽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이다. 「쉼터」에서 노동자 생산공동체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진 첫번째 교육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자”였다.

마포건설의 10년 계획도 마포건설을 건설노동자의 ‘직장’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정된 일거리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마포건설은 “건설소비자공동체”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포건설은 한번 인연을 맺은 소비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평생 하자보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정체성 부인’과 함께 오랜 세월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헤쳐 오면서 사람들의 몸에 밴 습관적 불신도 노동자 공동체에 큰 암초였다. 예를 들어 수십년간 계약과정상의 커미션을 당연한 것으로 보아온 조합원들이, 정

소장이 하는 영업활동이라고

별다른 것이라 기대할 리 없는 것이다. 진정한 한식구로서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 정소장은 “50년의 벽을 1~2년에 넘을 수 없다”며 조급한 생각을 버렸다. 한발한발 나아간다는 것이다.

조합원은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회사가 좀 더 안정되면 토목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건설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다. 마포건설의 ‘10년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생활공동체’ 건설도 꿈꿔볼 만 하다는 게 정소장의 생각이다.

정소장은 예전엔 등산, 낚시도 즐겼지만 마포건설 일을 하면서부터 손놓은지 오래다. 지난해부터 전국민민협의회 정책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가끔 가족들과 성당을 찾는 것으로 0점 가장의 체면을 세운다.

(김보현 기자)